

월요광장

### 천하(天下) 삼분지계(三分之計)



김 하 립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공명이 현덕에게 말했다. “이것은 서천(西川) 지역 54주의 지도입니다. 장군께서 패업을 도모하신다면 북쪽은 천시(天時)를 얻은 조조에게 양보하고, 남쪽은 지리(地利)를 차지한 손권에게 양보하고, 장군께서는 인화(人和)를 얻도록 하십시오. 세 발 달린 술과 같은 대립적 형세를 이루시면, 그 후에 중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명의 삼분지계에 눈이 뜨이고 흉중의 맺힌 것이 풀어지며 머리가 맑아진 유비는 이후 촉지역에 기반을 구축하여 ‘삼국’의 정립을 이룩했다.

당시 삼국의 인구와 병력은 위나라(450만 명·20만 명), 오나라(230만 명·15만 명), 촉나라(94만 명·8만 명) 순이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촉은 그 국력이 위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인구와 토지가 국력을 좌우했으나, 삼분지계의 일부분을 감당하기에 촉은 너무 미약했다. 이러한 열세를 돌파하고자 공명은 오나라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승상직을 맡아 갖은 계책을 동원해서 촉의 안위를 도모하고 삼국의 통일을 꾀했다. 그 결말이아 초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끝나고 말았음은 ‘삼국지’를 읽은 독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작금의 한국 사회가 ‘삼분지계’로 나아갈지, ‘오분, 칠분지계’로 나아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여야의 대립 구도에서 야가 여러 세력으로 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야권이 둘로 나뉘면서 세 세력이 정립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아갈 듯하기도 하다. 이 삼분지계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천시·지리·인화의 삼

재를 어느 세력이 획득할 것인가도 불투명하고, ‘병신(丙申)대전’을 치르고자 어느 세력이 어떻게 동맹을 꾀할 것인지도 아리송하며, 과연 동남풍이 불어올 것인지도 헤아리기 어렵다.

천시와 지리를 얻지 못한 유비는 ‘인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널리 인재를 구하고, 초야에 묻힌 재사와 장수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들이 유비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삼분지계의 한 축을 담당한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은 열세에 처한 세력이 어떻게 민심을 얻어서 ‘삼국을 정립’하고 대의를 펼쳐 나갔는가를 알려준다.

‘간용·효용·영용’으로 평가가 나누는 조조는 가장 막강한 국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삼국의 통일에는 실패했고, 물산이 풍부한 강남의 경제력에 기초한 손권도 결국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공명의 무수한 전략 전술에도 불구하고 공명이 죽고 나서 유비의 아들은 결국 항복을 한다. 역사는 천시를 얻은 조조나, 지리의 이점을 지닌 손권이나, 인화를 도모한 유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천하의 대세는 나뉘지 오래면 반드시 합하며, 합한 지 오래면 반드시 또 나뉜다.”(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 ‘삼국연의’의 컷머리 ‘도원결의’를 장식하는 이 구절에는 ‘합과 분’이라는 대립적 개념이 담겨 있다. ‘일치 단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듯이 우리는 ‘통일·통합’은 좋은 것, ‘분열·분리’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가 그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살다 보면 오히려 ‘뭉쳐서 망하고 흩어져서 흥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처럼, ‘합과 분’에 있어서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이다. 나와 내 주변을 위해서 나누거나 합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 줄뿐이다. 병신년의 관전 포인트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정유대전’의 관전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법조칼럼

### 판사실을 떠나 세상 속으로



박 민 섭  
변호사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지나버린 느낌이다. 2015년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개인적으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변화와 새로운 경험의 시기였다.

필자가 지난 2월 해남지원장 겸 부장 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 생활을 뒤로하고 변호사로 새 출발한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판사는 정제된 기록과 법정 진술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한다. 그것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는 있어도 마치 희뿌연 장막을 사이에 두고 물체를 보거나 두 눈을 가린 채 이야기만 듣고 모습을 상상하

는 것처럼 답답하였다.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으나 어떤 당사자들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가리거나 심지어 왜곡까지 하기에 판사는 인간과 삶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통찰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판사실을 떠나 세상 속에서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체험하고 싶었다. 그러한 체험이 없다면 원숙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지난 10개월간 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에게는 철학박과 간절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자신을 위해서건 가족을 위해서건 그들은 지금의 어려움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를 원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하는 그들 에겐 든든한 햇빛이 필요했다. 그런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이웃이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곤경의 터널을 지나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반성해본다. 어떤 이들은 분명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 선대로부터 누적된 거액의 회사 비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으로 기소되었지만 상당부분 무죄

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업인, 회사와 관계된 일로 증언하였다가 위증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된 회사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지만 소년부 송치되어 부모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성관계를 한 것이 강간이라고 기소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대학생, 임차한 마트 중 일부를 전대하면서 임대인의 명도 요구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사업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벌금형으로 감경된 농민,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남기려다 주택법 위반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온 부동산중개인, 입찰담합으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지만 3개월로 변경받은 회사 등 일일이 헤아리기 쉽지 않다.

의도했던 성과를 얻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변호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 결정은 법관이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일말의 기대를 했던 의뢰인

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때는 깊은 자괴감과 들근 했다. 사실은 이런 때가 변호사로서 가장 힘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한 방법은 항상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판사로서 보는 진실과 변호사로서 보는 진실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판사가 양 당사자 사이에 있다면 변호사는 판사와 의뢰인 사이에 있다. 그래서 변호사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을 위해 그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두 진실 가운데 꼭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변호사의 역할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변호사 되기를 결심하면서 스스로 한 다짐이 있다. 사건을 보지 말고 언제나 사람을 보자. 내가 아니라 의뢰인을 위한 다는 마음을 먼저 말자. 그 약속은 내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 언제까지나 간직하고 싶다. 2016년 새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희망을 간직하고 이루기를 기원한다.

기 고

### 세모(歲暮)에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김 광 태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가족끼리 왜 이래.’ 흔치 않은 대화 중 하나다. 서로 내 몸의 일부인 까닭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가족끼리도 법해서는 안 될 약속이 있다. 그 무언의 약속이 무참히 깨지는 상황을 보며 탄식하는 소리가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이다. 가족과 친족의 법적 범위는 다르지만 둘 다 혈(血)과 연(緣)을 끈으로 하고 있다. 철학자 괴테는 왕이건 농부이건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고 했다. 가정은 가족원의 이유 없는 안식처이자 종족보존의 터이다. 가족간 파열음이 많았던 한 해, 연말을

맞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모성애가 지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건강한 가정은 인류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어머니는 신의 화신이며 모성애는 신이 인간에게 맡겨놓은 신의 성품이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는 삶에 지친 가족원에게 울타리이자 사랑의 샘이었다.

지난 5월 초 미국 위스콘신 주에 사는 에린 여사는 갑작스런 과한 총격으로 3발의 총을 맞고도 두 자녀를 지켜냈다. 네 팔 지친 지역에서는 무너지는 건물 잔해 밑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갓난아이를 지켜낸 어머니의 사연이 가슴을 울렸다.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형장 예선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당당히 죽으라’고 편지를 보낸 분도 어머니였다. 우리 근대화의 주역도 전천후 어머니의 역동성이었으니 때로 어머니는 애국자이다. 그런데 최초의 살인자 카인의 후예인 까닭일까. 최근 일부 어머니는 그런 야가 패적 사랑의 화신과 다른 모습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이혼 건수만 11

만5천 건에 이르렀고, 갈라선 어머니 가정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가사와 육아까지 도맡아야 했다. 정말 견뎌내기 버거운 것이다.

그렇지만 어린 자녀를 방치하거나, 동반 자살하며 무참히 제 손으로 살해하는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결혼 가정에 대한 기초적 지원은 물론 우선적인 취업지원부터 고려해보자.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모든 실수와 실패, 시기와 분노, 슬픔과 아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녹여내는 사랑의 용광로가 가정이고 가족이다. ‘사랑하는 사이엔 미안하다는 말은 없는 거란다’ 영화 ‘사랑’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이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친족 대상 범죄 건수가 2011년 1만8901명에서 2013년 2만3654명으로 2년 새 25% 늘었다. 서울시 통계로는 작년 서울에서 학대를 당한 어르신 420명 중 가해자의 40.9%는 아들이었고 배우자(17%), 딸(15.4%), 며느리(5.8%) 등 가족이 대부분이다. 이쯤이면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둘이 넷이 되는 생물학적 분열도 의미 있지

만 건강한 가정은 건전한 사회의 기반이다. 특히 유년시절, 적어도 내살까지 가정교육과 환경은 인격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건강한 가정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고 든든한 국가의 기초 체력이 된다. 종종 매스컴에 등장하는 세대 간 갈등양상을 보면 동방예의지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든다. 다원시 적자생존 방식이 검증된 사회 발전방법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면의 부작용도 냉정히 짚어봐야 한다. GDP가 낮은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사실은 국민소득 3~4만 달러가 행복을 보장해주는 못한다는 반증이다. 돈 없이도 명성과 행복을 누리다 한 사람도 많지만 돈 때문에 더 불행해진 주변 상황을 보면 돈이 행복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심리학자 아들러의 지적처럼 미움받을 용기만 있다면 ‘사랑’으로 가정을 충분히 꾸릴 수 있다. 행복하길 원한다면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행복하려면 수시로 가정의 울타리를 확인하는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社 說

###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곳에 써 달라고 전하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이 100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최근 패션 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이 993번째 회원으로 가입된 것이다. 앙드레 김의 생전 기부액 6200만 원에 그의 아들과 임직원들이 이번에 3800만 원을 보탬으로써 1억 원을 채웠다고 한다.

해마다 연말연시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는 ‘기다리 아저씨’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6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은 “정부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며 1억2000만 원짜리 수표가 든 봉투를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기부는 공동체에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고 어려운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찾아주는 아름다운 행위다. 매서운

겨울 추위를 녹이는 익명의 기부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이들의 기부는 액수에 관계없이 대가없이 해마다 내는 성금보다 더 뜻 깊은 일로 받아들여진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새벽 전북 완주군 용진읍사무소 앞에서 20kg짜리 쌀 30포대가 발견됐다. 쌀 포대 위에는 “매년 연이어 작은 것이지만 저의 마음을 놓고 갑니다. 관내 손길이 못 미치는,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 얼굴 없는 천사 역시 8년 전부터 해마다 읍사무소 앞에 쌀을 두고 사라졌다고 한다.

자신의 선행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이들 천사들이 세밀, 덜 가져 의로운 이들을 보듬고 있다. “우리에선 도움이 절실한 400만 이웃이 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표어다. 나눔 캠페인에 보다 많은 이들이 동참했으면 한다.

### 경도골프장 등 누적 적자 300억원 넘는다니

전남도가 추진한 여수 경도골프장과 한옥호텔이 대표적인 공기업의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여러 측면에서 공공기관 사업으로는 적절치 않았지만 면밀한 대책 없이 강행하는 바람에 지방재정의 주름살만 깊어졌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경도골프장과 한옥호텔 사업 감사 결과는 뒤떨어진 경영행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업의 기초 조건인 수지분석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골프장의 경우 전문기관 용역에 따르면 회원권 분양률이 92%를 넘어야 타산이 맞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도골프장은 이를 지키지 못해 급기야 대중제로 전환했다. 골프장은 투자 금액 3214억 원에 이르고 사업을 시행한 전남개발공사는 재원 조달 과정에서 2200억 원의 지방채를 차입했다.

여수세계박람회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의 숙박 시설을 마련한다며 4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영산재와 오동

재 등 한옥호텔도 문제가 많았다. 호텔 사업은 서비스 차별화 등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특성 때문에 공기업이 뛰어들 경우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공적 투자가 적절치 않은 분야여서 발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잘못으로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한 골프장과 한옥호텔은 최근 3년간 누적된 적자가 308억 원이나 됐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도의 재정은 더욱 쪼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사업 결정과 추진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공기업이 투자를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투자 사업을 최소화하되 꼭 필요하다면 철저하게 사업성을 분석한 뒤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반드시 결과를 예측해 한 톨의 혈세라도 새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플러처상 수상작 전시회 등 각종 사진 전시회에 가면 흔히 접할 수 있는 작품이 있다. 다름 아닌 소방관들의 활약을 담은 사진이다. 이들 작품에는 화재나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인명을 구출하는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다. 화면 속에서 두 살 난 아이를 구출해 인공호흡을 하는 장면, 급물살에 휩쓸려 가는 사람의 손을 잡은 채 필사적으로 버티는 장면. 이들 소방관들의 사진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지난 4월 부산에서는 화재 현장의 불을 모두 끈 소방관이 한숨을 돌린 후 후텁지근한 식사를 하는 장면을 통해 퍼지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울려주었다. 소방관은 우리의 든든한 친구이자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광주에서는 지난 8월 14일 전북대에 서 말발집을 제거하던 소방관 노석훈(39) 씨가 고압선에 감전돼 심한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단돈 몇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안전 제거봉이 없애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노 씨는 10차례의 수술을 잘 견뎌 냈으나 왼손이 괴사돼 절단했다. 노 씨의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에 동료 대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성금을 모았다. 특히 지난 17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는 광주 지역 청년들이 서울과 광주에서 노 씨 지원을 위한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해 모은 돈을 치료비에 써달라며 기탁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청년들은 노 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팔찌와 배지 등 큰 텐트 상품을 직접 제작·판매했다.

한편 역시 별칭 제거 중 추락해 수גע릴 병상에서 지내야 했던 소방관이 있었다. 광주 소방대원 이수현 씨다. 이 씨는

최근 회복하지마자 성탄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벌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조선 정종 재위 2년 수장공에 불어난 적이 있었다. 이때 정종은 “궁궐은 이미 불타서 구제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이다. 말발집 제거 중 감전사고를 당한 소방관 노 씨 등도 안전장비가 없애 화를 입었다.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겠다.

/채희중 사회2부장 chae@

|   |                                  |   |  |
|---|----------------------------------|---|--|
| <b>光 州 日 報</b>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br>(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br>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br><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 문화사업국 2200-541<br><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
| 편집 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96                   | 광고마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br><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
| 정 치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다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918)                                     | 사 진 부 2200-693                   |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 F A X 02-773-9335 >                                    |
| 사 회 부 2200-663  | 조 사 부 2200-57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대표 FAX 222-4267)                                     |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   |  |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